

## 修練발전 워크샾 개최

大韓病院協會는 지난 2월 27·28일 이틀동안 大田 유성관광 호텔에서 醫協과 함께 병원표준화사업 및 수련교육 발전을 위한 워크샾을 갖고 ▲병원표준화 심사요강 통일화 ▲수련과정 평가 및 신입연한 인정 ▲대학병원인정범위 및 정원책정 기준 등에 대한 토의 결과, 이 문제는 각측 대표로 구성된 「공동연구위원회」에 위임하여 연구 검토 하기로 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 개최된 이번 워크샾에는 病協 및 醫協에서 85명의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임상각과 병원표준화 심사요강 통일화 및 활용방안 (서울의대 金宗善교수) ▲병원표준화 및 수련교육에 관한 현황과 문제점 (가톨릭의대 부속병원 李容珏원장) 등 2편의 주제강연이 있었다. 이어 ▲심사요강 통일화에 따른 문제점 및 해결방안 ▲수련과정 평가 및 신입연한인정방법 ▲정원책정 기준과 대학부속병원 인정기준 및 정원책정 절차 등 3개 분야로 나뉘어 주제에 대한 토의를 가졌다.

이 토의에서 病協측은 심사요강 통일화는 학회의 조사시기가 서로 다른 점과 공통항목이 극히 제한적이므로 배점 반영이 곤란하다고 지적했으며 병원신입 연한은 객관적 심사기준이 정립될

때까지 현행대로 실시할 것을 주장했다. 또 대학병원 인정은 3백병상이상 규모로 학생실습이 가능하며 2개병원을 상한선으로 할 것과 정원책정은 인턴수련기회를 확대하며 전공의 수를 N-0.5X로 개정하여 7개과 전문의 2인에 대해 적용하는 등 융통성을 부여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 5월 2일 定總갓기로

대한병원협회는 오는 5월 2일 여의도에 있는 대한생명 빌딩에서 제27차 정기총회를 갖기로 했다.

病協은 정기총회에 앞서 4월 11일과 18일 최종 상임 이사회 및 정기이사회를 갖기로 했다.

## 自保제도 改善委 열려

자동차보험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한 경제사회 발전계획 실무조정위원회가 지난 2월 29일 경제기획원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위원회에서 자동차보험회사측은 自保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전체 지급보험금의 47%를 차지함으로써 상실소득 및 위자료 보상금이 상대적으로 적고 自保환자들의 진료비가 다른 유사 질환자들의 진료비에 비해 과다 청구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自保診療酬價를 법제화하여 의료비 지출억제 ▲醫保酬價에 일정

한 비율을 가산한 酬價로 책정 ▲自保환자의 진료비 청구액을 별도로 설립된 진료비심사기구나 의료보험단체 등 전문심사기관에 위탁 심사받을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病協은 「公保險인 醫療保險은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제도인만큼 의료기관들이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감수해 왔으나 私保險인 자동차보험에 의한 피해까지 강요받을 수 없다는 것이 현재의 의료계 입장」이라고 전제한 다음 「자동차보험회사측의 自保制度 개선에 관한 주장은 3년전에 나왔다가 여러가지 불합리성이 지적되어 보사부에 의해 폐기됐을뿐 아니라 醫療保險酬價가 지나치게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으로 책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를 기준으로 自保診療酬價를 정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반대의견을 밝혔다.

## 病協, 협약가案 전달

大韓病院協會는 지난 1월 27일 의료보험 특정재료 협약가안에 대한 의견을 의료보험조합 연합회측에 전달했다.

病協은 이 의견서를 통해 「보험자단체에서 제시한 협약가안이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경쟁행위에 의해 형성된 일부 병원의 구입가인만큼 이를 기준으로 협약가를

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특히 협약가가 평균구입가 이하로 조정될 경우 품질저하 및 손폐량의증가 등 의료기관의 부담이 늘어나 결국 환자에게 적절한 진료를 제공할 수 없는 부작용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病協은 보험자단체에 이 의견서를 제출한데 이어 2월 5일과 12일 두차례에 걸쳐 보사부 및 보험자단체 의료단체 등 관계기관과 합일점 모색을 위한 회의를 가졌으나 서로 주장하는 견해가 달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病協은 2월 20일 또다시 의료보험조합연합회측에 ▲종별가중평균을 적용한 구입가를 산술평균하여 협약가를 산출할 것 ▲방사선필름의 경우 실구입가의 상승요인을 감안해 줄 것 ▲협약가격을 초과하여 구입하는 요양취급기관에 대해선 구입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청구할 경우 심사 지급해 줄 것 등을 내용으로 한 협회 의견서를 제출했다.

### 病協, 새理事 2人 선임

大韓病院協會는 2월 7일 제 38차 실행이사회에서 尹大元한림대학부속 한강성심병원장과 安得洙전북의대부속병원장을 각각 이사로 선임하고 다음 이사회에서 이를 추인받기로 했다.

尹이사는 金敎命 전 한강성심병원장 후임으로, 安이사는 殷洪

培 전 전북의대부속병원장 후임으로 각각 선임됐다.

安이사는 病協 전북지부장으로 겸하게 된다.

## “病院人 여러분의 투고를 환영합니다”

大韓病院協會는 機關紙 週刊 「병원회보」를 발행합니다. 여기에는 「독자란」을 마련, 전국 病院人 여러분의 대화의 광장이 되고자 합니다. 병원에 근무하는 病院人이면 누구나 職種을 가리지 않고 투고를 환영합니다.

病院人 여러분의 대화의 광장에서 만나십시오.

- 원고종류 : 논문(병원경영, 관리 등 병원 관련내용), 소설, 시, 수필, 직무수기, 제언, 만평, 만화 등.
- 투고자격 : 의사, 간호원, 의료기사, 행정사무직 등 병원근무 전직종 및 병원관련인사.
- 원고마감 : 수시
- 보 낼 곳 : 우편번호 11000 서울 중구 충무로 2가 49-17(조양빌딩 신관 10층) 주간 「병원회보」 독자투고담당자 앞
- 기 타 : ① 게재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 지급  
② 원고관계 사진, 그림 및 필자사진 동봉

### 病院會報

### 86대회 지원병원 확정

86 아시아경기대회 의무지원계획에 따른 지정병원이 지정됐다. 大韓病院協會는 서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각 경기장별 의무지원을 담당할 26개 병원과 후송병원 16개, 그리고 선수촌병원 1개 병원을 각각 지정, 통보했다.

### 「病院會報」편집위원회 개최

내달 21일 창간되는 대한병원협회기관지「週刊 病院會報」의 제 1차 편집위원회가 지난 5일 서울 외교구락부에서 열렸다. 이날 편집위원회에선 病協이

선임한 29명의 편집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한데 이어「病院會報」창간호 편집계획과 매주 한번씩 발행될 협회기관지의 기본 편집계획을 심의하고 앞으로의 편집방향에 관해 집중적으로 토의했다.

### IHF 발표논문 제출

大韓病院協會는 오는 9월 22일부터 26일 까지 5일간 자유중국에서 개최되는 국제병원연맹 (IHF)지역회의에 우리나라 대표로 주제발표를 할 발표자 및 논문제목을 확정, 이를 조직위원회에 제출했다. 논문제목 및 발표자는 다음과 같다.

▲1차보건진료와 병원사업과의 조정 (柳承欽·연세의대 예방의학 교수) ▲한국병원에 있어서 의료보험진료비 억제방안 고찰 (朴景華·일신기독병원장) ▲병원설계 표준화, 어떻게 대처하나 (柳運衡·서울대병원부설 병원연구소 연구원)

### 올해 예방약품 배정

保社部는 최근 전국 2백 22개 병원을 대상으로 금년도 전염병 예방약품을 배정했다. 이번에 배정된 장티푸스, 콜레라, 디티, 디티피 등 4종의 예방약품은 분기별로 해당 병원의 관할 보건소에서 수령하면 된다.

□ 編輯委員 : 韓斗鎭 朴利甲 金教命 黃泰植 梁萬奎

## 대한병원협회지

(通卷 132 號)

'86년 . 3 월호 (月刊)

등록일자 : 1972년 4월 27일

등록번호 : 제 라 1691호

인쇄일 : 1986년 2월 28일

발행일 : 1986년 3월 1일

發行人 : 白樂院

編輯人 : 黃泰植

印刷人 : 金善勳

발행소 社團法人 大韓病院協會

우편번호 1000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2가 49 전화 : 272-8905

### JOURNAL OF THE KOREAN HOSPITAL ASSOCIATION

Vol 15, No. 3

Mar. 1986

Publisher : Nak Whan Paik

Editor in Chief : Tae Sik Hwang

Published Monthly

by

The Korean Hospital Association

49, 2-Ga, Chung Moo-Ro,

Seoul, Korea TEL. 272-8905

\* 이 協會誌에 게재된 내용은 반드시 本會의 公式의인 의견을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